

# 누가 21세기의 선교를 책임지는가?

## 성백은 목사

21세기의 선교와 중보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보기도는 마지막 때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수단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보기도가 부흥과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중보기도를 통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여는 열쇠라 믿는다. 중보기도가 선교의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기능 중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라고 볼 수 있다.

Courtesy of David Park & Joshua Park



20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렇다면 누가 21세기의 선교를 책임질 것인가? 선교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늘 갈등이다.

지난 5월, 9박 10일 동안 “유대광야 중보기도 성회”(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에 다녀왔다. 그 성회는 중보기도자들의 중보기도를 위한 기도여행이었다. 교단을 초월한 70여 명이 미국, 한국, 파나마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순례의 길과 중보기도 그리고 매일 밤 기쁨 부으심이 넘치는 기도 집회가 끝나는 시간은 새벽 1시, 또는 2시를 넘어 갔다.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새벽에 드린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 모임은 하늘 문을 연 것 같았고,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시내산을 흔드는 것 같았다. 주위의 많은 외국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소리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또 잊을 수 없는 기도는 여리고 성곽터로 올라가 그 성곽일대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것처럼 ‘땅 밟기 기도’(Prayer walk)였다. 회개로 시작해서 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가면서 기도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여! 온 땅의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주의 복음의 빛이 속히 만방에 전파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매 바퀴를 돌 때마다 기도의 힘이 더욱 더 커지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뜨거운 열기가 물러오고 모래 바람이 불어 입안에는 모래가 들어와 기도하기에 불편했지만,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만이 승리를 주시기에 우리 모두 춤을 추며,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했다.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영적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중보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딤후 2:5-6).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이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중보기도 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기도하며, 중보기도를 강조하셨다(요 17). 그러므로 중보기도자 되는 것은 중보기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선교와 중보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보기도는 마지막 때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수단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보기도가 부흥과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중보기도를 통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여는 열쇠라 믿는다. 중보기도가 선교의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기능 중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라고 볼 수 있다(John D. Rabb).

1996년 필자는 선교학 박사과정 논문 차 인도네시아에서 필드리서치를 하게 되었다. 많은 국내의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중의 한 분은 바로 한국 선교사님이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선교사님의 바지 무릎 부분이 항상 떨어져서 길고 또 길기를 계속한다고 했다. 그 선교사님은 한 번 기도방에 들어가시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시므로 아무도 그가 언제 그 기도방에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분의 선교 방침 또한 기도이고 선교의 핵심 사역 역시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중보기도자로 키우는 것이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일단 그 지역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방을 하나 구한 후 몇 달 혹은 몇 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현지인들과 24시간 마라톤 중보기도를 한다고 했다. 13년이 흐른 지난 4월,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직까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현재 수많은 전도자를 발굴하여 현지의 신학교로 보내어 중보기도 용사로 훈련하고 선교하신다고 했다. 그 선교사님이 배출한 현지인 전도자들은 그 어떤 전도자들보다 탁월한 영적지도자들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중보기도의 선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전도단의 열방기도 전략과 사역에 있어



성백은(Christina Sung) 목사는 Evangelical School of Theology(M.A.)를 졸업하고, 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D.Miss.)학위를 받았다. 2002년 아이오와 연회에서 "Denman Evangelism Award"를 받았고, 현재 총회인종관계위원회 멤버이고 Des Moines, St. John's UMC를 섬기고 있다.



서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왔고, 중보기도자 훈련을 해 왔다고 한다. 또한 Praying through the 10/40 Window가 1993년에 시작되어 그해 10월 한 달 동안 105개 나라에서 2천만 명이 10/40창 62개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가 1996년에 시작되어 130여 개국 30여만 교회가 기도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 하나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새벽기도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나 철야기도회, 그리고 많은 기도원들을 보았을 때 한국은 진정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중보기도로 세계 선교를 준비시키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자녀, 내 사업과 내 교회 등 내 개인의 기도보다는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중보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캔자스시에 있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에서 미국 청년들이 다른 나라들과 북한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따라갈 수 없지만, 필자 역시 최근 몇 년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미국 성도

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저 구제만 하던 교회가, 성도들의 시선이, 교회의 벽을 넘어 열방을 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로 선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신다(겔 22:30).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담당할 중보기도 선교사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다(삼상 12:23, 엡 6:18).

중보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무엇을 구할 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롬 8:26).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다시 지난 5월 다녀온 "유대광야 중보기도 성회"로 돌아가 본다. 우리 일행은 가는 곳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였다.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해 물리친 '갈멜산'에 갔었다. 농경의 신 바

알을 섬긴 에세벨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했던 곳이다(왕상 16:30-33). 우리는 미혹의 영, 종교의 영,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고 이 세계에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보여 주시며 우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진을 친 유대교와 강력한 이슬람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 놀랍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이...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도는 계속 이어졌다.

누가 21세기의 선교를 책임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의로운 7천 명이 있듯이 지금도 그럴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7천 명 중 하나임을 깨닫고 확신하길 기도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온 땅의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장 8절).